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둠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25	12. 28	01. 01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득	김복자 권사	정환영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사

1. 함께 예배드께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현금 안내 – 십일조(Zehntе)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현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대강절 :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 성탄 축하 예배 – 25일(목) 오후 2시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 성탄현금은 우크라이나 상이용사 담요 현금으로 사용합니다.
 5. 신년 예배 – 1월 1일(목) 오후 2시에 드립니다(새해 말씀 카드 뽑기)
 6. 출국 – 박준형 형제(23일)
 7. 나눔의 시간 – 정화영 형제가 섬겨주셨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정규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현금	
감사현금	
십 일 조	
선교현금	
구제현금	
합계 (Euro)	
온라인현금(12월)	

브레멘 한민교회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 12:15)”



담임목사 이상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기훈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현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RRFDE22X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주일 예배 Gottesdienst 4. Adven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291장	다같이
기도 Gebet	-----	최종열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18:23-35(신p30) (Mattäus 18:23~35)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사랑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부상 당한 군인을 위한 담요 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장애를 입은 군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근처인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리비우 지역에만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천 명이 넘는 장애 군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며,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00명의 장애를 입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담요를 선물 하려 합니다. 군인들 대부분은 난방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담요는 실제적이고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당 한 장의 담요를 후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한 장의 담요를 준비하는 데에는 대략 15유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 우리가 멀리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담요 한 장이 전하는 따뜻함이 단순한 물질적 선물을 넘어,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배 선교사(우크라이나 선교사)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받은 사랑을 잊을 때 말과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2. 자신이 흘려보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서로 말해 봅시다.

